

BNK부산은행 ESG 경영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 은행



1 BNK부산은행 본점 사내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에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받은 임직원
2 김지완 BNK금융 회장이 저탄소 실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3 부산은행 본점 1층
4 안감찬 부산은행장



지난해 11월에는 녹색 분야 및 취약계층 등 사회 분야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국내 ESG 채권도 발행했다.

환경 관련 업체에 대한 여신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오염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업 영위 기업,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체 등에 지속적인 여신 지원활동을 수행 중이다.

올해 6월에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우대하는 'ESG 우수기업대출'도 출시했다.

ESG 우수기업 요건을 갖춘 대상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우대한다. 또 경영지원 컨설팅 제공, 여신 및 외환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속 가능 금융을 실현하고, 부산시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역 상생형 친환경 금융 상품인 '저탄소 실천 예·적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저탄소 실천 활동 이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부산지역 환경 개선 사업 기금으로 조성하는 상품이다.

BNK 김지완 회장과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상품 출시일에 본점 영업부에서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적극에 가입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6월 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녹색환경상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부산녹색환경상은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및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확산에 공헌한 시민·단체·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❶

BNK부산은행은 2003년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사회공헌사업 전담반을 신설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교육 메세나 사업, 코로나19 지원 사업,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부산은행만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 사회공헌·녹색금융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적극 실천

BNK부산은행은 지역대표 은행으로서 1967년 설립 이래 폭넓은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및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8년 9월 이후 친환경 그린뱅크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종이 없는(Paperless) 업무시스템 구축, 친환경 기업 지원을 위한 그린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 인증을 취득하고 '푸르게, Green(그린) 부산!'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 동백상징 숲 조성, 친환경 테마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등 환경보호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말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잔을 수거하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해당 물품을 지역 저소득층 아동에 기부하는 리플(RE: Plastic) 캠페인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 금융상품 출시 등 녹색금융 서비스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 환경부와 비씨카드 제휴 협약상품인 그린카드를 발행해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산정하고 연간 최대 7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2

